

대한민국 열린미술대전 대상 서예가 순천소방서 119 구조반장 이병국 소방교

“일하면서 새로운 도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6년간 단련한 사에 덜본인자 화재 현장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침착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자를 공부하니 세상의 이치가 눈에 보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40대 현직 소방관이 서예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상도 받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구조반장인 이병국(41·소방교)씨. 이씨는 2010년 제2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고 대한민국열린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는 등 서예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 한자공부해야”

지금은 소방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그가 처음 복을 입은 건 지난 1994년 3공수특전여단에서 직업군인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고향인 여수시 유품면에서 어린 시절 다니던 서당을 잊지 못해 군 복무 당시 인근 서

예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 이렇게 시작된 복과의 인연은 전역 후 1998년 소방관으로 부임하면서도 계속 이어졌다. 침착함과 성실함,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소방관의 특성상 서예는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침착함을 찾기란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은데 서예를 공부하면 심적인 안정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에 부임한 후엔 정식 지도를 받기 위해 매주 서울에 살고 있는 허회태 선생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허회태 선생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은 물론 삽화위원도 지냈고 미국 메이저급 전시장 5개 장소에서 7개월간 초대기획전을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예가. 이씨는 허회태 선생에게 서예의 기본자세부터 철저히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서예공부를 병행하기엔 힘든 부분도 많았다. 이 때문에 당직근무를 선후 쉬는 날에도 하루 종일 복과 떨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전년한 결과 각종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한자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직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익히면 모든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으니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학생들도 한자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매주 허회태 선생 찾아가 배워

이씨는 자신의 자녀 세 명에게 직접 한자를 가르쳐 주고 있다. 앞으로는 소방서에 공부방을 마련, 직원의 자녀들에게도 교육해줄 계획이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교육하는 것도 구상 중이다.

이씨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뛰고 또 뛰다 보면 보람은 물론 삶의 희망도 얻을 수 있으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이지현 전 5·18부상자회 회장

전남대병원서 보은의 공연

이지현 전 5·18민중항쟁부상자회 회장의 보은공연이 25일 오후 전남대병원 1동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의 첫 프로그램은 이지현 전 회장의 마술공연으로 병원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기획사인 월드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등이 나와 품바 공연을 비롯, 소양강 쳐너·이별의 부산 정거장·남행 열차·남과 함께 등을 들려줬으며 짚새기 신고·신만고 강산 등 민요와 다양한 가요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이지현 전 회장은 1980년 5월부터 1982년까지 전남대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으며, 당시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극진한 치료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30주기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 때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보은차원에서 공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장 중심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

최근 부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종보 호남본부장



2008년 개소했다.

정 본부장은 “2008년 노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취업 노인의 32%인 114만 명의 노인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고, 평생교육 또는 자원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증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수적이라는 것.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튜어토카·문화재발굴원 등 자체개발 일자리 밭을 추진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사업의 질을 확대·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고품질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장, 교육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365-881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부회장 출신이다. 교총 33대 수석 부회장 출신인 박용조 후보와 지난 3년간 함께 활동한 최교사는 전남여중·고, 광주교대 교수이며 현재 광주교대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교대 10회 동기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운천초 최정희 교사 교총 부회장 출마

광주 출신 교사가 전문직 최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주인공은 광주 운천초등학교 최정희 교사. 최 교사는 교총 회장선거에 출마한 박용조(기호 1번) 진주교대 교수의 러닝메이트로 부회장 후보로 나서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부회장에 출마한 최정희 교사는 교총 33

조용기 우암학원 학원장 ‘태춘문화대상’

조용기 우암학원 학원장이 최근 ‘태춘문화대상’을 수상했다.

태춘문화대상은 신성대학이 우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소득원이 될 수적이라는 것.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튜어토카·문화재발굴원 등 자체개발 일자리 밭을 추진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사업의 질을 확대·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개발 부문 대상수상자로 우암학원 설립자 조용기 학원장을 선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축구 선수로도 성공할 스타

가수 비, 1위에 뽑혀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28)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성공할 것 같은 스타’ 1위에 뽑혔다.



비는 음악사이트 오디오닷컴이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진행한 이 설문에서 2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첫순에 뽑혔다.

오디오닷컴에 따르면 비는 무대와 스크린에서 보여준 탄탄한 근육질 몸매와 날렵한 운동 신경 덕택에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 환경변화’ 특강

유재홍 한국전파진흥원 원장은 26일 오후 3시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205호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조선대학교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은 신문방송학과, 광고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방

▲전경혜(KT 광주마케팅본부장)씨

건강관리협회-정부합동청사 업무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원장 윤정웅)는 최근 행정안전부정부광주합동청사 입주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합동청사와 ‘공무원 건강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건강상담 및 체험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광주전남지부 제공>

목포해경 산정초등학생 초청 함정 견학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는 최근 목포 산정초등학교(교장 박광님) 전교생 300여명을 초청해 경비함정 견학을 실시했다.

<목포 산정초등학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족

▲신현직·김지영씨 장남 성철군 조정래(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 회장)·이현주씨 장녀 어려양=피로연 28일(금)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결혼식 6월12일(토) 오후 6시30분 서울 논현동 빌라드베일리.

▲김 원(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윤해경씨 장남 김병식·이돌심씨 장녀 진희양=29일(토)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홀)

▲서석철·정남이씨 장남 영욱군 박제범·이순금씨 차녀 주화양=30일(일) 경복궁웨딩컨벤션 1층(경복궁홀)

▲김종배·조정엽씨 차남 동욱군 강성수(혜성건설 회장)·임체현씨 차녀 주희양=30일(일) 낮 12시30분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동창·동문회

▲손불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며리재식당. 017-601-5866(총무부종성)

▲조대부중 23기(야)=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며리재식당 062-255-8252(구성재)

알림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전남해비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

구조·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 фор칠드.or.kr

모집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호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6월3일(목)까지 모집. ‘POP에쁜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문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엔자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증·노환),

취수,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송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약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이발기술 배우실 분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여립관. 062-524-0680.

▲어린이 건강교실(기관지 천식, 비만, 아토피, 어린이 질병)=매일 오후 4시~6시. 봉선동 연아빌링장 건물 1층. 062-651-1175~6.

▲‘마늘 죽’ 건강요법’ 주민건강 교육=매월 둘째주 금요일 저녁 7시. 남구 봉선동 연아빌링장 1층·인산죽연장 광주지사. 062-651-1175~6.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아름다운경매 동호회 모집=기초부터 학습, 물건, 체권, 권리분석,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동분석, 현장답사 직장인 스터디를 통한 체계적교육. 011-607-4614.

▲사랑의 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 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입검정 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 9시~12시 30분, 오후 2시~4시. 062-515-4488.

▲심관섭씨 별세 백호·옹진씨 부친상=발인 26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